

하늘 가족의 조건

QT는 Quiet Time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01 찬양과 기도



<오늘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통 379) **주의 말씀 듣고서** **204**

필리피(F. S. Miller), 1905 우주를 만신 위에 놓은 거장이요 MORE TO FOLLOW: 7.6.7.6.D.REF.
보통으로 편 7:251 P. P. Bliss(1838-1876)



1.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 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닥고
2.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닥고
3.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부딪 쳐도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부딪 칠때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후렴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는 우리 집 잘 짓세

쉬운 기타 코드(Capo=1st): Eb - D Bb - A Ab - G

주의 말씀 듣고서 성경



본문 말씀을 2~3회 읽은 뒤 문맥을 고려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 (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 (21)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 (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 (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 (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 (3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04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05 기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나의 기도

7

3월 토

하늘 가족의 조건

예수님을 오탁하거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요구를 오탁하는 일들이 계속되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권속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3-35절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적 가족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다른 방도가 없으며, 예수님과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신민이라는 특별한 자격도 혈연이라는 특별한 관계도, 서기관이라는 특별한 지위도 하늘 가족이 될 자격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우리)에게 주시는 고운은 무엇입니까?

21.31절 예수님을 안다는 친숙함(익숙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들, 또 가까운 가족들은 메시아로서 공적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가족을 훤히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고(6:1-6), 훗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이들도 메시아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연수는 예수님을 아주 친밀한 분으로, 성경을 익숙한 책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낯선 말씀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굳어진 신앙의 외피를 고집하며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22-30절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헐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행한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의 논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매장시키려는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어 그 나라로 들어갈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은 그것을 슬퍼하고 돌이킬 때 죄를 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총을 거부하고 모독하면 죄를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한 동기를 품고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폄하하고 비난한다면, 그 비난이 하나님을 향한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공통해 저 안에 굳어진 익숙한 생각을 넘어, 낯설지만 진실한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일 방 세계에서 15번째로 지상들이 높은 나이지리아는 전체 인구의 30%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 나이지리아 교회의 사역을 통해 상의 의미와 희망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지도록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가?

본문 : 마가복음 3:20-35

핵심질문 :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

세상에는 오직 두부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의 권세 아래 속한 사람 (20~22절) 예수님의 가족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사탄의 권세 아래 종 노릇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아래 종 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친 것이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23~30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탄이 거머쥐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 안에 갇혀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 노릇하던 자들을 건져 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어 놓으신 저 좁은 문을 향해 어서 달려 나가십시오. 우리를 향해 크게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의 품으로 빨리 도망가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분초가 급합니다. 속히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속한 사람 (31~35절) 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긴 자는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다른 믿는 지체들과 연합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섬기며 지체를 위해 헌신합니다. 주님은 누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은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도 더불어 풍성한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사랑함으로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